

태권도 선수들에서 장무지 신전건 손상

Extensor Hallucis Longus Tendon Injury in Taekwondo Athletes

을지대학교 노원을지병원 족부정형외과, 을지대학교 노원을지병원 방사선과*, 한국 체육대학교 스포츠의학연구소†

이경태 · 최윤선* · 이영구 · 이정필† · 양기원 · 박신이

❖ 서론

정상인과 태권도 선수에서 양측 족부의 장무지 신전근 손상 발생률과 손상이 잘 발생하는 부위를 파악하고자 한다.

❖ 대상 및 방법

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50명의 일반인을 대조군으로, 국가 대표급 태권도 선수 각각 50명을 실험군으로 하였으며 설문지를 이용하여 과거력과 여러 기초자료를 확인하였고, AOFAS 점수 및 만족도를 이용하여 족부의 이상 정도를 파악하였으며, 초음파를 통하여 장무지 신전근을 확인하였다.

❖ 결과

일반인에서는 장무지 신전근 손상은 2%에서 보였으나, 태권도 선수들에서는 20%에서 이상을 보였고, 일반인에서 AOFAS 점수는 92.95 ± 9.18 였으나 태권도 선수들에서는 88.45 ± 10.93 으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고, 초음파를 이용한 결과에서도 대조군은 1명 1 장무지 신전근(2%)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으나 실험군에서는 10명 16 장무지 신전근(20%)에서 이상소견을 보여 이 결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. 실험군에서 초음파상 10개의 족부에서 근 삽입부에서, 4개의 족부에서 중족골 부위에서, 2개의 족부에서는 근위지골 부위에서 이상 소견을 보였다.

❖ 결론

장무지 신전근 손상은 태권도 선수에서 20%로 일반인의 2%에 비해 확연히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, 초음파상에서 근 삽입부, 중족골, 근위지골 순서로 이상이 많이 보였다.